올해 사업 '굿'…상복 터진 목포시

노인일자리·웰빙공원 사업 등
중앙부처·지역발전위 잇단 수상
올해 7개분야 4억여원 지원받아

목포시, 올해 주요 수상 내역
-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대상
- 2015년 지역발전사업 우수상
-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 최우수상
- 청사 에너지 절약 전국 최우수
- 전국 보건교육경연대회 역할극 금상

목포시는 최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한 '2015년 지역발전사업 추진' 최종 평가에서 철도 폐선부지 웰빙 공원 조성 등 2개 사업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상사업비 3억원을 받았다. 〈목포시 제공〉

목포시가 최근 중앙부처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수상 소식이 잇따르는 등 겹경사를 맞고 있다.

목포시는 20일 "올 들어 7개 분야에서 각종 상을 수상해 상 사업비 4억15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선 6기 박홍률 시장 체제 출범 이후 지난해 15개 분야를 포함해 총 23개 분야에서 각종 상을 휩쓸었으며, 상사업비만 5억4400만원이나 챙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9월만 해도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대상에 이어 '전국 보건교육경연대회 단체 역할극'에서도 금상을 수상했다.

목포시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목포시노인복지관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4년 노인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사회공헌형 부문 전국 1200여 개 수행기관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은 것이다.

목포시보건소도 최근 대구에서 열린 전국 보건교육경연대회에 참가해 시도별 경연대회를 거쳐 선정된 전국 16개 팀 1000여 명과 경합한 끝에 단체 역할극 금상과 개인교육경연 동상 등을 수상하는 성과를 냈다.

목포시팀은 이번 경연에서 '4분의 기적, 잠자는 심장을 깨워라'를 주제로 단체 역할극 및 심폐소생술, 심장 충격기 등을 시연해 호평을 이끌어 냈다.

목포시는 지난달 말에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한 '2015년 지역발전사업 추진' 최종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시는 '철도 폐선 부지를 활용한 웰빙 공원 조성사업'과 지역행복생활권 전남 서남부(목포·해남·무안·진도·신안) 연계협력 사업인 '취약지역 청소년 문화체험 사업' 등 2개 사업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특히 웰빙공원 사업은 도시 활력증진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전남에선 목포시가 유일하게 국비보조금(지역발전특별회계)으로 상금 3억원을 지원받았고, 12년째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도시계획과 김충 담당은 지역발전위원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또 목포시보건소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254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종합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하기도 했다.

시 보건소는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 건강증진분야 전남 1위, 전국 3위 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도 수상하면서 명실상부한 시민의 건강증진기관으로 우수성을 전국에 떨쳤다.

이에 앞서 목포시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2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한 '지방자치단체 청사 에너지절약 평가'에서 전국 1위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으로 37억4000만원의 보통교부세를 지원받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수상으로 목포시는 지자체 청사 에너지절약 평가에서 2013년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1위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명예도 얻었다. 이는 목포시청 전 직원이 친환경 그린 청사를 목표로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44.53%의 에너지(전기·연료) 절감률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민선 6기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실천 계획 평가'에서 SA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에 선정됐고, '2015 통합방위태세 확립' 최우수기관 선정과 목포항구축제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도 수상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잇단 수상은 시민과 공무원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얻은 좋은 결과물"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시민이 참여해 함께 나아가는 시정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임영춘·고규석 기자 lyc@

목포항 '자동차 허브항'으로 거듭난다

전용부두 운영 컨소시엄 선정
2025년 年 100만대 처리 목표

목포항이 '자동차 메카항'으로 거듭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은 20일 "최근 목포신항 자동차부두 운영회사로 가칭 '목포신항국제자동차부두(주)'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소시엄에는 주간사인 세방(주)를 비롯한 CJ대한통운(주), ㈜동방, 목포신항만운영(주) 등 4개 하역사가 참여했으며, 내년 3월 운영을 목표로 단일법인 설립과 운영건물 건립 및 보안시설 설치 등에 나설 계획이다. 목포항 자동차 전용 부두는 3만톤급 1개선석, 야적장 47만㎡ 규모다.

목포항에서 처리하는 자동차화물량은 지난 2012년 27만대에서 2013년 34만대, 2014년 38만대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자동차 화물 처리물량도 전국의 10%를 차지할 정도지만 자동차 전용부두가 없어 화물수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목포항은 목포신항 잡화부두에서 자동차 화물을 임시 처리하고 있었으며, 야적장 부족으로 수출차의 원활한 수송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자동차 전용부두 운영이 시작되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수출차량 물량은 물론 중국과 동남아 등 해외항만의 환적화물 유치도 가능해져 목포항의 자동차 화물 처리물량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김형대 청장은 "자동차 전용부두 및 배후야적장을 추가로 개발·확보할 계획"이라면 "2025년에는 목포항을 연간 100만대 이상의 자동차 화물을 처리하는 명실상부한 자동차 허브항만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목포시청 축구단 창단 첫 플레이오프 진출 눈앞

내셔널리그 4경기 남기고 4위
기대 이상 성적에 관심 뜨거워

목포시청 축구단 구단주인 박홍률 목포시장이 지난 19일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열린 울산 미포조선과의 경기에 직접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목포시청 축구단이 2015 축구 내셔널리그에서 창단 6년 만에 첫 플레이오프 진출을 눈앞에 두면서 시민들의 응원 열기도 뜨거워 지고 있다.

20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지역연고를 둔 10개 팀이 출전해 총 27경기를 펼치는 내셔널리그는 현재 4경기를 남겨놓고 있으며, 목포시청 축구단은 10승 6무 7패(승점 36점)로 역대 최고인 4위를 기록중이다.

특히 열악한 재정여건과 두텁지 못한 선수층 등 악조건 속에서 일궈낸 결과여서 더욱 값진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목포시청 축구단은 올 시즌 리그 후반기 들어 돌풍의 핵이 되고 있다.

4위 자리를 놓고 경쟁해왔던 용인과 대전에 무려 승점 8점과 10점차까지 달아났으며, 울산현대미포조선과 목포시청이 치열한 3, 4위 순위 다툼을 벌이고 있다. 1, 2위인 경주 한수원과 창원시청과도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박빙세다.

올 시즌 시청 축구팀이 기대이상의 성적을 거둔 것은 김정혁 감독의 강한 리더쉽과 최용우, 한재만, 권혁진, 조범석 등 주력선수 등이 맹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목포시청 축구단에 대한 목포시민의 관심도 뜨겁다.

지난 19일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열린 울산미포조선(3위)과 목포시청(4위) 간의 빅매치에는 목포시 관내 초중고 팀 선수들과 생활체육회 동호회원 등 300여명이 찾아 열띤 응원을 펼치기도 했다.

구단주인 박홍률 목포시장도 직접 경기장을 찾아 "지역의 명예를 걸고 선전을 펼쳐달라"며 양 팀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날 경기에서 목포시청 팀이 승리할 경우 4강 진출이 확정되는 상황이었지만, 0-1로 석패해 아쉬움을 남겼다.

6년째 목포시청 축구단을 이끌고 있는 김정혁 감독은 "올해는 반드시 4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고규석 기자 yousou@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촉구 건의안 채택

목포시의회 322회 임시회 폐회
영세중소상인 부담 완화하기로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 제322회 임시회를 지난 9일부터 9일간의 회기로 17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귀선〈사진〉 의원의 영세 중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내수촉진을 위해 발의한 '영세중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촉구 건의안'이 채택돼 눈길을 끌었다.

건의안은 영세가맹점 연매출 2억 원 이하는 1.5%→1%, 중소사업자 3억 원 이하는 2%→1.5%로 각 0.5%인하하고, 영세가맹점대상을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상업자 연매출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신용가드 가맹점 대상 확대와 수수료율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의회는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법 개정의 조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와 각 정당, 금융위원회 등에 보내기로 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2015 목포 시민의 상'에 사회봉사 기여 박홍용씨

'2015 목포 시민의 상' 수상자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천직으로 여기고 살아온 박홍용(55·사진)씨가 선정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민의 상 수상자를 1명만 선정하기로 해 수상의 의미가 크다.

목포시는 "올해부터 시민의 상 선정 방식을 기존 각 부문별 수상자 선정에서 1명만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지역사회봉사 부문 후보인 박홍용씨를 최종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상자 박씨는 사랑나눔 봉사대 회장, 용당2동 명예동장·주민자치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장학금 기탁과 장애인, 홀로 사는 노인, 결손가정 등 소외계층을 돕는 데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박씨는 재능기부 나눔으로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20년 동안 '길거리 경로잔치'를 개최하는 등 효사랑 운동 확산에도 모범을 보여왔다. 박씨는 그동안 법무부장관 표창(2002), 보건복지부 장관 상(2004, 2007),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2005), 전남도 도민의 상(2010) 등을 수상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0월 1일 제53회 목포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열린다. /목포=임영춘기자 lyc@